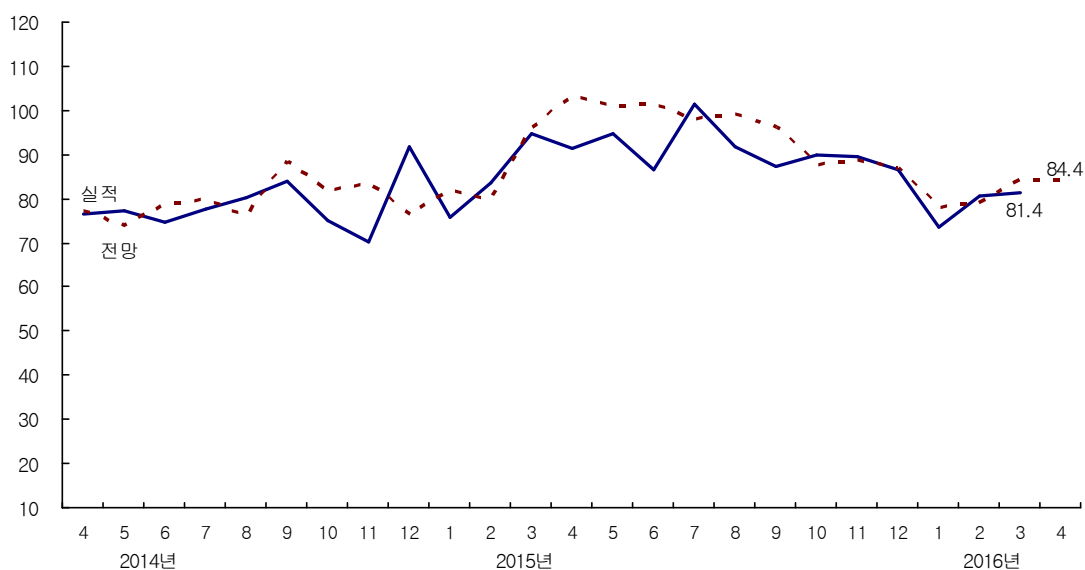


# 2016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3월 CBSI 전월비 0.6p 상승한 81.4 기록  
2개월 연속 상승. 단, 지수 자체는 여전히 부진

- 2016년 3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6p 상승한 81.4를 기록함.
  - － CBSI는 2015년 11월 이후 주택경기 둔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전월인 2월에 통계적 반락 효과,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7.3p 상승했음.
  - － 3월에도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CBSI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 이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수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 혹한기가 끝나 공사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계절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참조 : 3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전월비 6.7p 상승).
  - － 다만, 3월 CBSI 상승 폭이 0.6p에 그쳤고, 지수 자체도 1, 2월을 제외하면 14개월 내 최저 수준에 불과해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한 것으로 판단
  - － CBSI는 작년 7월에 주택경기 호조세, 공공 발주물량 소폭 회복 등의 영향으로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9월 이후는 감소세를 나타냈고,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건설경기 BSI 추이 >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비 상승했으나,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함.
  -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비 7.7p 상승한 100.0을 기록해 3월 CBSI 상승을 주도함.
  -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5.6p 하락한 83.3을 기록해 2개월 연속 80선에서 정체함.
  -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0.6p 하락한 57.4를 기록해 여전히 체감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5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6.7	73.5	80.8	81.4	84.4	84.4
구 모 별	대형	115.4	100.0	125.0	107.7	100.0	100.0	92.3	100.0	92.3	100.0	84.6	92.3
	중견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93.8	76.5	88.9	83.3	86.1
	중소	82.0	65.3	80.9	72.5	64.6	63.3	71.1	63.0	47.9	58.0	57.4	73.3
지 역 별	서울	103.0	97.4	115.2	100.5	97.2	100.6	98.2	99.0	88.3	93.0	91.9	85.1
	지방	82.6	71.0	80.4	78.4	72.4	74.3	75.9	66.2	51.5	61.9	66.5	83.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6년 4월 CBSI 전망치는 3월 실적치 대비 3.0p 높은 84.4를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4월에는 건설경기가 3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4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망치의 상승 폭이 크지 않고, 현재로선 4월에도 특별한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없어 4월 CBSI는 소폭 개선되는데 그칠 전망이다.
- 한편, 지역별로 3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기업이 전월보다 1.1p 하락한 91.9를 기록, 지방기업은 4.6p 상승한 66.5를 기록함.
  - －서울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1.1p 감소한 91.9을 기록함. 하락폭이 미미하고 지수 자체도 90선으로 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기업 지수의 경우 4.6p 상승한 66.5를 기록함. 최근 4개월 동안 가장 양호한 수치로, 지방 공공공사 발주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3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전월비 6.7p 상승한 87.2 기록

- 2016년 3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6.7p 상승한 87.2를 기록함.
  - － 신규공사 수주는 작년 8~10월 기준선 100.0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였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 연속 하락한 결과, 지수가 80.5 까지 후퇴하였음.
  - － 3월에 들어와 지수가 6.7p 반등하였는데, 이는 4개월 연속 감소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 매년 2~3월 사이 지수가 일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예년 증가폭(3~4p)보다 2~3p 정도 높은 수준으로 지수가 반등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1/4분기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를 좀 더 앞당겼는데 이게 3월 공사수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살펴보면, 비주택은 지수가 악화되었으나, 토목과 주택이 전월 대비 10p 이상 상승함.
  - －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지난 2월 공종별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73.4를 기록하였는데 3월에 지수가 12.2p 상승한 85.6을 기록함. 최근 정부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1/4분기 SOC 발주를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 한편, 주택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보다 15.3p 상승한 90.0을 기록함. LH 공사의 주택 발주 증가와 일부 수도권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증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8.1p 하락한 79.7로 공종별로는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과 중소기업의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전월 보다 15.4p 상승한 107.7을 기록함. 특히 공종별로 신규주택이 115.4로 기준선(100.0)을 넘어섰는데, 대형업체의 주택 신규수주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대비 5.6p 하락한 86.1을 기록, 2월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 비주택이 80.6으로 가장 낮았는데 중견기업의 비주택 수주가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10.4p 상승한 64.4를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이 전월보다 13.0p 상승한 68.1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정부의 소규모 토목물량 발주가 증가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7.2	107.7	86.1	64.4	98.1	71.5
	전망	91.5	100.0	88.9	84.4	90.8	92.5
토목	실적	85.6	100.0	86.1	68.1	94.0	73.5
	전망	79.8	76.9	86.1	76.1	75.8	85.6
주택	실적	90.0	115.4	91.4	58.7	105.9	67.3
	전망	88.9	107.7	88.6	67.4	96.8	77.6
비주택	실적	79.7	92.3	80.6	63.8	85.6	71.2
	전망	88.4	107.7	88.9	65.2	95.9	77.6

주 : 실적은 2016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6년 4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3월보다 4.3p 상승한 9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지수가 90선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해 수주 물량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90선에 근접한 88.9, 88.4를 기록하였는데, 건축 공종 중, 특히 비주택 건축의 회복이 예상됨.
- 다만, 토목이 79.8로 지수가 70선으로 하락해 4월 총선 이후 관련 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월보다 5.3p 상승한 91.8 기록**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12.5p 하락한 77.4 기록**

- 3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5.3p 상승한 91.8을 기록함. 기준선에 100에 미치지 못했으나, 올 들어 가장 양호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건설공사 기성지수는 작년 8~10월 기준선(100.0)을 넘어 양호했음. 그러나, 11~12월에 90선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1~2월에 80선 중반으로 떨어짐.
- 3월에는 5.3p 상승한 91.8로 3개월 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이 107.7로 대형업체의 기성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중견도 전월 대비 8.3p 상승한 94.4로 양호했음.
- 다만, 중소는 전월보다 9.8p 하락한 70.2를 기록 중소기업의 기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6년 4월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90.6으로 3월 실적치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3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12.5p 하락한 77.4를 기록함.

- 3월 수주잔고 지수가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아, 3월에 준공된 공사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는 기준선인 100.0을 기록하여 2월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견과 중소기업이 각각 66.7, 63.0을 기록해 이들 기업의 수주잔고가 전월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6년 4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3월보다 4.0p 상승한 81.4로 잔고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종합	구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91.8	107.7	94.4	70.2	103.0	75.8
	전망	90.6	100.0	91.7	78.3	94.0	85.6
수주 잔고	실적	77.4	100.0	66.7	63.0	85.4	65.9
	전망	81.4	92.3	80.6	69.6	82.9	79.2

주 : 실적은 2016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 3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전월과 비슷(+0.3p)한 87.7을 기록, 업체들의 자금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 지수는 0.3p 상승한 87.7로 여전히 기준선 100.0에 도달하지 못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3.4p 상승한 79.2를 기록해 악화 정도가 소폭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 자금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87.7	92.3	94.4	74.5	92.7	80.5
		전망	93.3	92.3	100.0	86.7	91.6	95.8
	자금조달	실적	79.2	84.6	83.3	68.1	83.2	73.5
		전망	82.6	84.6	86.1	76.1	83.2	81.7

주 : 실적은 2016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끝.